

도시, 헤게모니, 그리고 투기적 도시화

박배균*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서 주춤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휩싸여 있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상승하였고,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절망하였고, 일부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의 대열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투기적 도시화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된 이래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의 상승은 언제나 큰 사회적 논란거리였으며, 투기적 도시화는 한국의 비판적 공간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그런데,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은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시장의 합리성 혹은 자본주의 정치-경제 구조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해법 또한 대부분 경제-제도주의적 접근법을 취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 결과 기존 논의들은 투기적 도시화의 핵심적인 배경인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욕망을 학술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해법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 센터장(geopbg@snu.ac.kr)

사실 도시 중산층의 투기적 욕망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합리성의 논리로만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화-공간적 과정의 복합적 결과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특집호는 한국의 투기적 도시화를 사회-문화-공간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강남식 신도시를 지향하는 욕망, 취향, 감정들이 헤게모니적 담론과 정동을 구성하는 과정의 사회-문화-공간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논문들을 모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강남화”로 불리는 과정을 통해 강남식 신도시를 열망하는 담론적 재현과 정동들이 도시화 과정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에 대한 지배적 헤게모니는 한국의 도시화 과정을 관통하는 정치-경제적 힘에 의해 구조결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공간적 힘과 과정이 복합적이고 우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결합되면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집호의 논문들은 한국 사회에서 도시적 삶에 대한 특정한 헤게모니적 재현, 비전, 이미지와 정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현과 정동들이 어떻게 투기적 도시화와 결합되고 혹은 탈구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논증한다.

박배균·박양범의 연구는 강남식 도시화가 어떻게 담론적으로 재현되는지, 그러한 재현들이 강남화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정동들과 어떻게 균열적으로 접합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강남화가 헤게모니적 도시성으로 자리 잡아 도시 중산층의 지배적 관념과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를 통해 강남화의 헤게모니는 어떤 단일 중심의 강력한 힘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의 강남식 신도시들과 다중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매우 다양한 물질적·담론적·정동적 힘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만들어진 매우 균열적이고 불균등하며 울퉁불퉁한 역사-지리적 과정의 결과물임이 강조된다.

심한별·정진영·문지석의 연구는 강남식 도시주의가 한국 도처에 복제되면서, 구체성의 강남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의 강남이 한국 여러 도시들의 도시화 과정에서 지배 원리로 작동하는 과정을 도시 중산층의 주거실천에 대한

탐구를 통해 드러낸다. 특히, 각 개인의 주거실천에 강남식 도시주의 이데올로기로 정향된 '투기적 주체성'이 개입되는 과정을 5개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거 경험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밝힌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연구는 주거실천에 대한 정동적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적 주체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강남 지향의 지배적 도시주의 이데올로기의 한계와 균열의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경애·백일순·정진영의 연구는 강남식 신도시 거주민들의 주거가치 인식과 실천을 정동경제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특히,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재독해하여 정동경제론을 가치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환가치'를 역사적이고 정동적인 구성물이자 근본적으로 투기적인 가치로 규정한다. 그리고,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가치 인식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일상에서 어떠한 정동적 힘들이 교환가치를 향하는 투기적 신체를 만들며, 이 과정에서 주거가치가 어떻게 교환가치의 증식으로 환원되거나 환원되지 않는지 추적한다. 특히,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많은 신도시 주민들이 주거가치를 자산 가치로 인식하며 증식을 추구하지만 이는 때로 가족구성원의 필요와 요구, 삶의 질이라는 구체적인 일상의 가치들과 충돌하고 미끄러지면서 교환가치의 증식이라는 추상적 가치로 불완전하게 환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승원의 연구는 투기적 도시화를 야기하는 헤게모니적 영토화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시 구성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념적 구체화가 실천 영역으로서의 도시 전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를 헤게모니적으로 영토화하고 있는 투기적 도시화의 현실적 의미를 밝혀주며, 더 나아가 특정한 도시 구성체가 불완전하게 재현할 때 구성적으로 발생하는 '남유(catachresis)'와 '추방(ban)'이 투기적 도시화를 속성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도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승원은 쫓겨난 자들의 투기적 도시화에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전복과 해방의 실천이 '도시 커먼즈' 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투기적 도시화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 탐색한다.

강남화로 묘사되는 한국의 투기적 도시화 과정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분

아니라, 담론적 재현, 감정, 정서 등과의 복합적인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공간적 과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강남화 과정은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균열적이고 다중심적이어서 다양한 대항 헤게모니 전략과 도시민들의 실천을 통해 충분히 변화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투기적 도시화를 부동산 문제로 축소하여 경제-제도적 방식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도시민들의 지배적 관념과 상식, 정서와 느낌 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공간적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해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